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 혐오에 관한 연구

림수진

멕시코 콜리마대학교

림수진(2016),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 혐오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1), 73-105.

초 록 본 논문은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혐오를 다룬다.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 숫자는 기형적이라 할 만큼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혐오가 공고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니카라과 이주민 급증과 관련한 코스타리카 사회 내 지배적 시선은 니카라과측 배출요인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후반 니카라과 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니카라과로부터 기인한 배출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동시대 코스타리카 산업구조 다각화와 농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코스타리카측 흡인요인에도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코스타리카 사회 내 니카포비아의 일반적 원인으로 주목되는 고용 박탈과 사회보장 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오류를 설명하고 코스타리카의 국가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예외주의'와 '중앙고원주의'를 중심으로 니카포비아 원인을 분석한다.

핵심어 니카라과 이주자, 코스타리카, 혐오, 중앙고원주의, 예외주의

적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표면적 원인은 코스타리카 내 존재하는 니카라과인 수다. ‘니카포비아’가 사회적으로 부상했던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인구는 4백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공식적으로 계산되는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의 숫자는 30만 명에 가까웠다. 전체 인구의 7-8%를 점한 셈이다.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에 가깝다 하지만, 비공식 통계는 적게는 50만 명에서 최대 1백만 명에 이른다.²⁾ 20세기 말 소문으로 떠돌던 ‘니카라과인 1백만 설(說)’과 함께 한 세기 이상 ‘중미의 스위스’라 불리며, 중미 국가들 중 유일하고 예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구가하던 상황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이 지배적이었다. 때마침 찾아온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보장 시스템 약화에 대한 원인이 니카라과 이주자들에게 돌려졌다. 치안 불안 또한 니카라과인에게 핑계가 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니,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를 향해 들어오는 첫 관문에 적힌 ‘코스타리카인과 니카라과인은 항상 형제입니다’라는 글귀가 무색하다.

본 연구는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혐오에 초점을 맞춘다. 산 후안 강을 사이에 두고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향하는 이주는 라틴아메리카 역내 이주의 대표적 현상 가운데 하나다. 남-남 이주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니카라과인의 코스타리카 이주와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두 나라의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구체적 현상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의 역사적 접근과 니카포비아의 등장 에 관해 살펴본다. 둘째, 니카라과측 배출요인이 주요인으로 비춰지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코스타리카 내 일반적 시선에 반하여 코스타리카측 흡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니카포비아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니카라과 이주자 수 급증에 따른 코스타리카 사회 내 전반적 불편함과 그 이면에 내재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2) 1990년대 말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통계에서는 50만 명 안팎으로 보고 있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1백만 설이 유력했다.

세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외국인 524,632명 중 아이티인이 458,233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87.3%를 점한다.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 전체 국민 중에서 아이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대비 니카라과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6.7%보다는 낮게 나타난다(도미니카공화국 인구통계).

1.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의 역사적 추이

코스타리카 내에서 니카라과인에 대한 구분은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었다. 특히 오늘날 코스타리카의 영토로 편입된 ‘과나카스테(Guanacaste)’ 지방의 일부는 오랜 시간 니카라과 영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완전 분리독립 한 이후로도 코스타리카 북쪽 지역에서는 명확히 니카라과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한 독립 이후 코스타리카의 인구 정주와 행정력이 수도 산호세(San José)와 알라후엘라(Ajajuela), 그리고 에레디아(Heredia) 각 주의 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고원 지역에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니카라과와 접하는 북쪽 지역은 오랜 시간 관찰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독립 이후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최초의 유의미적 이주라 할 수 있는 것은 1850년대와 60년대 고무채취를 목적으로 코스타리카 북쪽과 대서양 연안으로 월경하던 니카라과인들이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고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고무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때다. 코스타리카로 넘어온 니카라과인들은 국경 근처에 머물거나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고무를 채취했지만 코스타리카 정부는 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1884년 검문소를 설치하지만, 관리는 역량 밖이었다(Boza Villarreal y Solorzano Fonseca 2002).

니카라과인 이주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직접 관여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서양 철도건설 시기였다. 대서양 연안의 열악한 기후 조건 때문에 코스타리카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리비언과 중국인들이 유입되었고, 니카라과인들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당시 니카라과인들은 흑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는 것과 그들이 오직 흑인이나 중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³⁾ 대서양 철도공사가 끝나고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토지에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건설한 United Fruit Company(UFCO)로부터도 니카라과인들은 환영 받았다.⁴⁾ 당시 니카라과인들은 UFCO 영지 내에서 임금인상 혹은 처우와 관련한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는 아프로캐리비언들과 맞서 폭동 브레이커로 투입되었다. 코스타리카 정부와 UFCO의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호의는 1934년 UFCO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병충해가 확산되자 생산기지를 태평양 연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코스타리카 정부의 흑인과 중국인에 대한 지독한 혐오정책 때문에 태평양 연안으로 이전하는 UFCO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은 니카라과인들로 한정되었다(Botey Sobrado 2005; Bourgois 1994, 141).⁵⁾ 당시 니카라과인들은 코스타리카 내에서 혐오 대상이기보다 호의 대상이었다.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들의 이주 역사는 <표 1>을 통해 확인된다. 코스타리카 인구통계에서 최초로 국적 기준이 사용된 것은 1864년이다.⁶⁾

<표 1> 코스타리카 내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니카라과인 비중

통계 연도	CR전체 인구	CR 내 외국인인구	외국인 비중(%)	CR 내 니카라과인	전체인구 대비 비중(%)	외국인 대비 비중(%)
1864	120,499	2,653	2.2	1,196	0.99	45.08
1883	182,073	4,556	2.5	1,014	0.56	22.26
1892	243,205	6,289	2.6	1,302	0.54	20.7
1927	471,524	44,340	9.4	10,673	2.26	24.0
1950	800,875	34,821	4.3	16,559	2.07	47.55

출처: 해당연도 인구통계

- 3) 당시 코스타리카 정부는 중국인과 카리브지역에서 이주한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했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법제화 했다.
- 4) 1927년 코스타리카 인구 통계를 보면 당시 바나나 플랜테이션이 있던 리몽 지역에만 2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니카라과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5) 당시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던 중국인과 아프로캐리비언들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법적 제재 때문에 대서양 연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 6) 동시에 인종구분에 의한 통계도 계속되었다. 인종구분은 Blanco, Mestizo, Negro, Chino, Indigena 등으로 분류되었다.

<표 1>은 1864년 이후 1950년까지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의 절대적 수 변화와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및 외국인 대비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표 1>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1864년에 비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니카라과인이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가 195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는 점이다. 1883년과 1892년 그리고 1927년 통계에서 니카라과인이 전체 외국인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은 대서양 철도 건설 당시 카리브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흑인들의 국적이 1940년대 후반까지 자메이카 혹은 영국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년도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서도 확인된다. 반대로 1950년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줄어듦과 동시에 니카라과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1948년 이후 코스타리카 내 흑인들이 코스타리카 국적을 회복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세기 이후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째, 1920년대 공황 직전까지 대서양 연안지역에서 생산된 바나나 수출 통해 코스타리카 경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이며,⁷⁾ 둘째는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까지 소모사 일가와 산디니스타들, 그리고 콘트라 반군 간의 내전이 심화되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산디니스타 정권이 무너진 후 니카라과 경기 침체기다. 여기서 한 시기를 더 구분한다면 1998년 이후 허리케인 미치(Mitch)로 인해 니카라과 농업기반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코스타리카로 이주한 경우다. 1980년대 이후의 시기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어찌되었든, 니카라과인들의 코스타리카를 향한 이주는 코스타리카 내에서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인들의 존재는 상호보완의 의미였고 1980년대 내전 기간 정치난민이 유입되던 시기까지만 해도 코스타리카 내에서는 이들에게 ‘지붕’을 제공해 준다는 사회적 호의가 지배적이었다.

7) 이는 <표 1> 중 1892년과 1927년 사이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증가를 통해 확인된다.

2. 니카포비아 등장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혐오가 형성된 것은 20세기 말 니카라과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와 축을 같이 한다.⁸⁾ 다시 말해,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인이 정식 명칭인 Nicaragüense가 아닌 부정적 이미지를 수반하는 ‘Nica’라 불리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표 2>를 보자.

<표 2>를 통해 보이듯, 195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니카라과인이 코스타리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950년대 이후 오히려 감소하던 패턴에서 1984년 증가를 통해 1997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7.95%로 급증한다. 당시 인구통계상 26만 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통계에 기록된 숫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니카라과인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니카라과인이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은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⁹⁾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로

〈표 2〉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 증가 (단위: 명, %)

통계연도	CR전체인구	CR 내 니카라과인	전체인구 대비 비중
1950	800,875	16,559	2.07
1963	1,336,274	16,467	1.23
1973	1,871,870	17,315	0.93
1984	2,416,809	30,539	1.27
1997	3,270,700	260,000	7.95

출처: 해당연도 인구통계에서 재구성

- 8) 78,360명의 니카라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Davila(2010) 연구에 의하면 10.4%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코스타리카로 이주하였고 26.9%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그리고 54.5%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코스타리카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1995년 이후 이주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 9) 이 시기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합법 30만 명, 불법 20만 명으로 계산된다. 당시 니카라과 정부는 코스타리카 내 자국민을 약 44만 명 정도로 보았다(Gonzalez, B. 2013). 니카라과 내전 기간에만 46,000명의 정치난민이 유입되었고 1989년과 1991년 사이에는 68,623 명의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998년 일시적 사면조치가 있었을 때 총 154,86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면을 받았는데 그 중 97.3%가 니카라과인들이었다(Estudiente del Programa Maestria Academica-Comunicación 2000).

〈표 3〉 니카라과 여성을 통한 출산이 코스타리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연도	%	연도	%	연도	%
1986	3.1	1991	3.7	1996	8.9
1987	3.2	1992	3.7	1997	9.9
1988	3.5	1993	4.8	1998	10.9
1989	3.7	1994	6.4	1999	12.3
1990	3.7	1995	7.7	2000	13.6

출처: castro V 2002, 18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여성을 통한 출산 비중을 볼 수 있다. <표 3>을 보자.

<표 3>은 코스타리카 내 전체 출산 중 니카라과 국적 산모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역시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 증가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1990년대까지 줄곧 5% 미만에 머물다 1990년대 후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이주하는 여성의 연령대가 여성들의 가임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코스타리카로 이주한 일부 니카라과 여성들의 출산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해당 수치는 <표 3>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불편한 숫자들은 코스타리카 사회에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고 이어 혐오로 고착되기 시작했다.

III. 이주의 요인들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니카라과측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배출요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니카라과인 이주에서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 내전이었고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이 여전히 확연한 요인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니카라과인들의 코스타리카 내 이주는 니카라과 측의 배출요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20세기 말 빠른 속도로 증가한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내전이라는 정치적 측면 외에 니카라과 측 배출요인으로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전 중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상황이었다. 내전 기간 니카라과의 실업율은 25%를 넘어서고 있었고 소득수준은 굳이 코스타리카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중앙아메리카 다섯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¹³⁾ 낮은 소득은 곧 빈곤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 양국의 빈곤 상황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2년 통계에서 도시에서는 19.2%가 농촌의 경우 25.5%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비해, 1993년 니카라과 통계에서는 도시의 경우 31.9%가 그리고 농촌의 경우 76.1%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⁴⁾ 두 나라 사이의 확연한 경제적 차이는 2000년 이후로도 지속되는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3년 6.0달러에 머물던 일당이 2002년 8.1달러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니카라과에서는 오히려 1.6달러에서 1.1달러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Baumeister 2006).

니카라과 측 배출요인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니카라과 내 농업과 용 감소다. 20세기 후반 니카라과 농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했던 것은 면화생산이었다. 당시 니카라과 면화생산은 국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온

생하면서 수많은 니카라과인들이 생존을 위해 코스타리카 국경을 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 코스타리카 내에서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정하기는 어려울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 13) 1993년 농업 부문에서 코스타리카 최저임금은 109.3달러인데 비해, 니카라과측은 23.8달러였다. 제조업의 경우 코스타리카가 116달러였고 니카라과가 39.7달러였다. 서비스업은 135달러와 39.7달러로 차이를 보였다(PNUD 1999, 366). 2001년의 임금차이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Pratt y Rivera(2003, 22)에 의하면 2001년 코스타리카 농업노동자의 평균 주급이 57달러인데 반해 니카라과는 8달러로 나타난다. 더불어 엘살바도르는 23달러, 과테말라는 29달러, 온두라스는 15달러, 그리고 미국은 543달러로 나타난다.
- 14) 이와 같은 상황들은 2000년대 이후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Davila(2010) 연구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니카라과 전체 인구의 69.9%, 2004년에는 88.9%가 빈곤선(하루 2달러 미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니카라과 이주자들을 상대로 이주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빈도수가 나타나는 것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alimentar la familia)’이다. 특히 1992년에는 니카라과 가구당 평균 소득으로 기초생활 필수품(Canasta Básica)을 1.5배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02년에는 평균 가구 소득으로 기초생활 필수품을 70% 밖에 구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니카라과인들의 코스타리카 이주에 대한 절박성을 보여준다.

〈표 4〉 니카라과 내 농업 고용 변화(1978-2000)

	1978년	2000년	증감율
커피	81,000	77,000	-4.9%
사탕수수	8,000	14,300	78.8%
면화	150,000	0	-100%
바나나	3,200	1,200	-62.5%

출처: Baumeister 2006, 62

두라스나 엘살바도르로부터 국외 이주자들까지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내전을 거치면서 면화생산은 전멸했고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농촌실업을 야기했다. <표 4>를 보자.

20세기 후반 니카라과 주요 작물 생산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고용이 증가한 것은 사탕수수다. 하지만 사탕수수 작물 재배가 갖는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은 니카라과 내 농촌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이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코스타리카 측 흡인요인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인들이 갖는 불편함의 원인은 가장 먼저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과, 그 원인으로 니카라과 측의 배출요인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되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코스타리카가 전쟁과 빈곤에 휩싸인 이웃나라 니카라과 때문에 더불어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감정이 일반적이고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니카포비아가 기원한다.¹⁵⁾ 과연 그럴까? 본 절에서는 20세기 말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와 관련하여 니카라과측의 배출요인을 고려

15) 코스타리카인들이 니카라과 이주자 증가와 관련하여 갖게되는 니카포비아의 기본 축은 니카라과 이주자들로 인해 코스타리카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측면이 훼손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그간 중앙아메리카에서 유일하고 예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구가했던 코스타리카도 중앙아메리카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빈곤을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즉 중앙아메리카화(Centroamericanización)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면서 동시에 코스타리카 측의 흡인요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코스타리카측에서 본다면, 니카라과인 이주를 흡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 니카라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내 산업과 고용구조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1990년대 후반 적극적이고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니카라과인 이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코스타리카 내 고용구조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변화는 노동의 인종적 분업이다.¹⁶⁾ Paniagua(2007, 62)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내 전체 건설노동자 중 60%, 농업은 75%가 니카라과인에 의해 유지되며 농업 부문에서 가장 니카라과인들의 빈도수가 높은 부문은 사탕수수로 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부문에 대해서는 Baumeister(2006)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바나나를 지목하며, 니카라과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위에 제시된 직업군 외에도 남성의 경우 사설경비에 많이 고용되고,¹⁷⁾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가사서비스 부문에 고용되는 것으로 조사된다.¹⁸⁾ 가사 서비스 부문에서 니카라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를 통해 본다면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는 니카라과측의 배출요인과 더불어 코스타리카 측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코스타리카 경제구조 다각화다.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1차산업에 중점을 두던 코스타리카 경제구조가 1980년대 이후 2·3차 산

16) 코스타리카에서 모든 험한 일은 전부 니카라과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일반적이다.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농작물 수확부터 비숙련 건설노동, 그리고 도시 곳곳의 허드렛 일이 니카라과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고, 또한 그들의 참여가 없으면 코스타리카의 수많은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17) 니카라과 이주남성이 각 개인 집이나 가게 등과 같은 장소에 사설경비로 고용되는 것은 그만큼 코스타리카의 치안이 열악하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인데, 치안 부재의 원인을 니카라과인 이주자의 급증에서 찾음과 동시에 니카라과 이주자를 사설경비에 고용하는 현상이 1990년대 후반 급증하였다.

18) Lerussi(2008) 연구에 의하면 코스타리카에 도착하는 여성이민자의 경우 초기에는 79%가 가사서비스에 진입하고 이 중 72%가 이 업종에 남게 되며, 이들 중 52.5%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한다. 나머지 34.2% 7세에서 15세 연령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커피와 바나나 수출에 기반하던 농업중심 생산활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도시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코스타리카 내 경제활동 인구 중 농업종사 인구는 1950년 55%였으나 1984년 34.6%, 그리고 2000년에는 19.5%로 감소했다(Sandoval 2008, 287). 같은 기간 관광 관련 경제활동 인구는 4.5%에서 8.7%로 증가했고 금융서비스업 종사도 2.9%에서 6.3%로 증가했다.¹⁹⁾ 결과적으로 1950년 33%에 머물던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2000년 59%까지 성장하였다(해당년도 인구통계).

이 기간 제조업 부문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은 국제적 수준의 의류상표 제조 공장이 코스타리카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²⁰⁾ 서비스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광산업의 성장과²¹⁾ 다국적 콜센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점이다.²²⁾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 HP의 컴퓨터 생산라인 일부와 Intel이 코스타리카에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로 들어왔다.²³⁾ 1980년대 이후 코스타리카 내에서 관광산

19) 같은 기간 관광산업을 통해 창출된 고용은 38,900개에서 71,280개로 증가했다 (Baumeister 2006).

20) 1980년대 말 코스타리카에 들어오기 시작한 의류 상표들은 Lee, Dockers, Conair, Levis, Van Heusen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이 1990년대 말 중미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서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로 이전하였다.

21) 관광산업은 코스타리카가 중미 다섯 나라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다음 표를 보자.

각 국 관광수입 (단위: 백만USD)							
	1980년	1985년	1990년	1992년	1995년	1997년	2000년
코스타리카	81.0	118.3	275.0	431.1	657.7	719.3	1229.2
과테말라	61.6	13.3	117.9	234.9	238.8	273.7	535.3
니카라과			15.8(91)	23.3	49.5	79.8	128.6

출처: FLACSO 2005, 182에서 재구성

22) 코스타리카 내 미국 기반 콜센터들이 이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최대 3,7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미국과 같은 시간대를 공유한다는 점과 중미 국가들 중 영어구사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23) Intel은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97년 코스타리카로 들어왔다. 연간 3,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고, 2015년 철수했다.

업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내 에코투어리즘 수요의 성장과 코스타리카 자연환경의 결합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월등히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얻은 ‘중미의 스위스’란 별칭이 다시 부각된 시기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은 곧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폭발적 고용창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던 코스타리카의 경제활동 인구가 3차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1980년대 이후 코스타리카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도, 농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 농업생산은 프리홀레스와 쌀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곡물과 커피와 바나나, 사탕수수가 주축인 전통적 수출작물로 구분되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농업구조의 가장 확연한 변화는 기존에 활발하지 않았던 수출용 과일과 채소, 그리고 화훼의 약진이었다.²⁴⁾ 구체적으로 과일에서는 메론과 오렌지, 그리고 파인애플이 중심이 되었다.²⁵⁾ <표 5>를 보자.

〈표 5〉 중미 다섯 나라 농업 생산 구조 변화(1990-2002)

	1990년			2002년		
	기본곡물	전통수출	비전통수출	기본곡물	전통수출	비전통수출
코스타리카	9%	74%	17%	3%	43%	53%
엘살바도르	30%	48%	22%	34%	34%	32%
과테말라	15%	55%	30%	10%	57%	33%
온두라스	19%	63%	18%	13%	68%	19%
니카라과	28%	60%	12%	43%	40%	18%

출처: Pratt y Revera 2003, 18

24) 이들 작물을 전통적 수출작물, 즉 커피와 바나나 그리고 사탕수수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비전통수출작물’이라 한다.

25)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코스타리카 파인애플 생산은 95,880톤에서 903,125톤으로 약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같은 시기 오렌지는 110,689톤에서 405,000톤으로 약 4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메론 역시 48,600톤에서 176,804톤으로 성장했다(임수진 2005). 파인애플 생산 급성장은 미국자본 유입으로 인해 가능했다.

〈표 6〉 중미 각 국 과일과 채소 수출액 변화(단위: 백만USD)

연 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1984	21	7	36	29	2
1990	100	8	40	39	2
2004	581	43	120	172	32

출처: Baumeister y otros 2008, 69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코스타리카는 중미 다섯 나라 중 유일하게 20세기 말 전통수출작물에 비해 비전통수출작물의 비중이 증가한 나라다. 다음 <표 6>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비전통수출작물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코스타리카가 중미 다섯 나라 중 절대적인 생산량뿐 아니라 성장 속도 또한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 5>와 <표 6>을 통해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농업구조가 비전통수출작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코스타리카 전통수출작물의 축소를 의미하진 않는다. 커피와 사탕수수, 그리고 바나나 생산 역시 비전통수출작물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²⁶⁾ 결국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내 전통수출작물 생산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가운데 비전통수출작물의 급진적 성장은 농업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²⁷⁾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코스타리카 내에는 비전통수출작물 부문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를 해결한 것은 니카라과 이주자들이었다.²⁸⁾ 실제로 코스타

26) 1990년 803,400톤에 해당하던 커피 생산은 2000년 902,235톤으로 증가했고 사탕수수 생산은 같은 기간 2,436,000톤에서 3,472,000톤으로 증가했다(임수진 2005). 또한 바나나 생산 총액은 1985년 1억4천9백만 달러에서 1995년 6억4천9백만 달러로 증가했다(Sandoval 2008, 291).

27) 1979년부터 2000년 사이 코스타리카 내 농업노동력 수요 증가는 커피의 경우 4만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42.5%의 증가율을 보였고 바나나의 경우 19,700명에서 37,700명으로 91.4%의 성장을 보였다. 더불어 비전통수출작물 생산에 따른 고용 창출은 4만 명 이상이었다(Baumeister 2006).

28) 커피생산의 경우 코스타리카 내 수확기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양국 정부간 합의 하에 합법적으로 코스타리카 커피수확기에

<표 7> 코스타리카 농촌고용 중 니카라과인이 차지하는 비중

	오렌지	바나나	메론	사탕수수	커피	프리홀레스
전체고용	1,500	35,000	4,000	100,000	57,000	2,000
니카라과인	1,000	16,000	2,000	83,000	36,000	1,500
니카라과인 비중(%)	66.7%	45.7%	50.0%	83.0%	63.2%	75.0%

출처: Baumeister 2006, 65

리카 내 농업부문에서 니카라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력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표 7>를 보자.

<표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코스타리카 농업의 경우 기본곡물, 전통 수출작물, 그리고 비전통수출작물까지 니카라과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본곡물인 프리홀레스나 전통수출작물 중 커피, 그리고 비전통 수출작물에 속하는 오렌지와 메론의 경우 수확기가 적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집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 대부분의 노동력 공급이 계절이주한 니카라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코스타리카 내 산업구조 변화와 농업 부문에서의 비전통수출작물의 급격한 성장은 니카라과인들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니카라과 노동력의 유입이 없었다면 코스타리카 내 산업구조 변화 이후 농업 부문에서 비전통작물 수출에 기반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80년 이후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는 니카라과 측의 정치적 불안정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폐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코스타리카 측의 강력한 흡인요인이 있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IV. 코스타리카 내 제노포비아적 관점에서 본 니카포비아

코스타리카 내 니카포비아의 가장 일반적 양상은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

니카라과인 이민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커피밭 이민노동자 통합 프로젝트’가 구상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1990년과 1993년 코스타리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그간 코스타리카 내 불법으로 거주하던 니카라과인들에게 사면을 시행함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임수진 2005, 130).

한 부정적 이미지와 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그간 코스타리카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로 나타난다.²⁹⁾ 2005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NICA/ragüenses³⁰⁾를 통해 밝혀진 코스타리카인들의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증오적 이미지는 “너무 많은(son demasiado)”, “일자리를 빼앗는(quitán muchos campos de trabajo)”,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온(que han venido a matar)”, “국경을 닫아야 하는(que debería cerrar la frontera)”,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que los devuelvan a Nicaragua)”, “코스타리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코스타리카인들의 일자리만 빼앗는(que no hace ning?n aporte al país sino más bien quitan el empleo a los ticos bajos salarios)” 등이다. 물론 자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니카라과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된다.³¹⁾ 구체적인 예로 니카라과인들이 폭력적이거나 거짓을 일삼고 무식하다는 것과 같은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코스타리카 내 방송프로그램에서도 니카라과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거나 희화되는 경우다.³²⁾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도 가해자가 코스타리카인인 경우에는 국적이 표시되지 않고 이름이 나오지만, 니카라과인인 경우 아주 분명하게 신문 머릿기사에 ‘니카라과인(Nicaragüense)이 저지른 범죄’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는 식이다. 방송 뉴스에서도 앵커가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국적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식이다. 반대로 니카라과인이 피해자일 경우 단지 개인 이름만 거명될 뿐 국적은 언급되지 않는 것이

29) 이는 20세기 초반 코스타리카인들이 대서양 철도건설에 투입된 중국인과 흑인들에 대해 보여준 제도포비아와 맥락을 같이한다. 코스타리카 내 중국인 혐오와 흑인 혐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임수진(2012)와 림수진(2015)를 참고할 것.

30) 2005년 미국인 Julia Fleming과 니카라과인 Carlos Solis에 의해 제작된 55분 분량의 영상물이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양국에서 상영되었다.

31) 언론에 의해 니카라과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Molina(2002), Huhn(2008), Campos Zamora y Tristan Jimenez(2009) 참고할 것.

32) 니카라과인의 무지함 혹은 무식함을 희화하는 것은 코스타리카 코메디 프로그램의 주 소재이기도 하다.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니카라과인’이라는 단어를 항상 범죄자와 연결시킴으로써 코스타리카인들로 하여금 니카라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1백만 설’이라는 소문이 굳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월드뱅크에 의한 집계가 40만 명에 가깝고 니카라과 정부의 계산도 5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³³⁾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니카라과인의 숫자는 코스타리카 공식 통계에서 집계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분명하다.³⁴⁾ 이를 받아들인다면 니카라과인이 코스타리카 전체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훨씬 넘어선다. 여기에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니카라과인에 대한 잠정적 혹은 실제적 범죄자 이미지가 더해진다면, 코스타리카인들의 불편함 감정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Huhn(2008)은 코스타리카 언론이 국내 치안불안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니카라과인의 존재와 연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중미의 다른 나라들에서 불안 혹은 치안부재(inseguridad)와 관련한 뉴스가 주로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곤 등과 연결되는 반면, 코스타리카 언론에서는 사회불안이 즉각적으로 ‘이주’ 문제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물론, 그 이주는 니카라과인들의 이주를 말한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주자(migrante)라 함은 외국국적을 가진 채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옳으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이주자’는 니카라과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이주자’ 대신 ‘관광객’ 혹은 ‘은퇴자’ 등으로 불리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코스타리카 사회가 이

33) 2011년 니카라과 정부가 집계하는 자국민 해외이주자 수는 60만 명에서 80만 명이다. 그 중 65%가 코스타리카로 이주한다는 결과를 감안한다면 니카라과 정부가 확인하는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수가 50만 명을 넘는다.

34) 보통 코스타리카에서는 실질적인 니카라과인 숫자에 대해 공식 통계의 3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andoval 1999). 한편 1999년 코스타리카 인구학자 Gilbert Brenes는 La Nación(1999년 10월 17일자)에 ‘¿Cuántos Nicaraguenses?’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니카라과인 1백만 설을 부인하며 32만 명에서 36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주자들에 대해 갖는 이중적 태도, 특히 니카라과인들에 대해 갖는 불편한 감정 혹은 좀 더 공격적으로 표출되는 니카포비아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일까?

1. 고용박탈과 사회보장 악화에 대한 우려

일반적으로 니카라과인들의 이주를 바라보는 코스타리카 사회 내 지배적 의견은 니카라과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코스타리카인들의 고용기회 박탈과 임금하락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니카라과인들이 코스타리카 내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 부분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간 코스타리카가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예외적이고 유일하게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상황들이 니카라과인들의 이주로 인해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중앙아메리카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의 상황으로 전락할 것이란 두려움이다.³⁵⁾

그러나 실제로 Gindling(2009)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민으로 인한 임금하락과 고용기회 박탈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코스타리카 내 경제활동에서 양 국민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임금하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하여 오히려 니카라과인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농업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 부문에서는 임금 하락이 아닌 임금 상승이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특히, 코스타리카인 고용 기회 박탈에 대한 걱정과 관련하여 Gindling은 교육수준별로 코스타리카 경제활동인구 남여를 구분해서 분석을 시도했는데 분석한 결과 초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코스타리카인 여성 경우만이 니카라과로부터 이주한 경제활동인구와 고용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반면, 코스타리카 중등교육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이익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국 코스타리카 경제활동인구와 니카라과 이주자로 구성된 경제활동인구는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35) 이 현상과 관련하여 'Centroamericanización'이란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Sandoval(1999)을 참고할 것.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니카라과 이주자 증가와 함께 코스타리카인들이 걱정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악화도 그들의 기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³⁶⁾ 최근 십수 년 사이 코스타리카인들이 주변국과 비교하여 자긍심을 갖고 자국의 상징처럼 여겼던 국가연금-의료보험(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CCSS)의 서비스 질이 하락해 온 것은 사실이다.³⁷⁾ 특히 의료부문의 경우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포화상태에 달했고³⁸⁾ 의료시설 낙후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³⁹⁾ 이에 직면하여 언론들은 원인을 코스타리카 내 급증하고 있는 니카라과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니카라과인들에 대한 혐오가 더욱 급증하기 시작했다.⁴⁰⁾ 너무 많은 니카라과인들이 CCSS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절한 순간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⁴¹⁾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1년 CCSS가 범민주보건의위원회(Organización

-
- 36) Alvaro y Martínez(2013)는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의 약화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모델을 채택해오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내재된 것이었다고 밝힘과 동시에 2007년 발효된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에 의해 극화되었다고 설명한다.
- 37) 코스타리카인들의 행복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노후복지와 의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CCSS의 존재였다. 특히 코스타리카인들의 잠재의식 가운데, 자신들이 코스타리카 국민인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을 만한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이 갖는 높은 행복지수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CCSS가 창설된 1948년 평균수명이 47세였으나 오늘 날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80세에 이르게 된 것도 CCSS의 주역할이라 간주된다(Ortega 2014).
- 38) 2012년 CCSS를 통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대기일 수가 623일이었고 초음파의 경우 1년 만이 소요되었다. 2012년 수술대기자 수가 118,000명에 이르렀다(Ortega 2014).
- 39) 2012년 코스타리카 전체 의료시설 중 73%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Ortega 2014).
- 40) 코스타리카의 경우 초등교육과 응급 의료서비스는 국적이 상관없이 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급증이 코스타리카 내 사회보장 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태동되었다.
- 41) 관련기사로 El colapso de la CCSS (http://www.nacion.com/opinion/foros/colapso-CCSS_0_1005099519.html), Inmigrantes dejan de ser una carga para la CCSS (http://www.nacion.com/nacional/Inmigrantes-dejan-carga-CCSS_0_1006099385.html), Costa Rica Inmigracion Nicaraguense afecta servicio de salud en Costa Rica(www.medicinatv.com/noticias) 등이 있다.

Panamericana de la Salud, WHO 부속)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코스타리카 정부와 CCSS의 방만한 운영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CCSS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의료보험 분담금이 1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고 또한 기업으로부터도 징수하지 못한 분담금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2011년 당해만도 CCSS의 적자는 1억8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정부의 CCSS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⁴²⁾

또한 CCSS의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코스타리카 언론과 사회 여론은 모든 책임을 니카라과 이주자들에게 돌렸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코스타리카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CCSS 재정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⁴³⁾ 또한 연령 면에서도 니카라과 이주자들이 코스타리카 평균에 비해 훨씬 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다.⁴⁴⁾ 실제로 20세기 말 니카라과인들이 코스타리카 사회보장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전체 대비 3.5%에 지나지 않았다(Sandoval 2008, 291).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이 차

42)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다른국가들처럼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부 투자는 1980년 23.3%에서 1992년 14%로 감소했다. 특히 이 중 의료부분에 대한 투자는 45%에서 32%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기 인구 1000명 당 병원 침상 수는 2.9개에서 1.7개로 감소했다(Sandoval 2008, 291). 더불어 1982년 정부가 분담하던 비중은 노동자 급여의 3.25%에 해당했으나 1980년대 후반 1.25%로 축소되었고 이어 2011년 당시 0.25%까지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rtega(2014)와 Bravo(2015) 참고할 것.

43) Martinez Pizarro y Reboiras Finardi(2008)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는 55.1%, 니카라과 이주자 중 경제활동 인구는 67.4%로 나타난다. 코스타리카 이주 관련 사회학자 Carlos Sandoval은 니카라과 일간지 La Prensa Libre(2015년 5월 4일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만 우리사회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사회도 그들에게 기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저출산과 노령화에 접어들어 코스타리카 인구구조가 CCSS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동시에 코스타리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이 CCSS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

44)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경우 49.1%가 연령대 20세에서 39세에 속하는 반면, 코스타리카는 39.9%가 같은 연령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하는 비중이 10%를 육박했던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박탈과 사회보장 서비스 질의 악화에 대한 우려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존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조작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가정체성에 대한 위협

코스타리카 측의 흡인요인이 분명히 존재했고,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경제 활동이 코스타리카 경제활동인구와 상호 충돌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의 존재로 인한 임금하락이 없었고 사회보장 악화에 대해 이들의 직접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스타리카 사회 내 존재하는 니카포비아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먼저 <표 8>을 보자.

<표 8>은 19세기 후반 이후 2000년까지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들의 지역 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19세기 후반 코스타리카 내 변방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과나카스테와 폰타레나스를 중심으로 분포하던 니카라과인들이 2000년 통계에서는 산호세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⁵⁾ 니카라과

<표 8>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지역적 분포 변화(단위: %)

지역(Provincia)	1864년	1883년	1892년	1950년	1963년	2000년
San José	6.9	6.8	9.3	10.2	19.4	40.15
Cartago	10.7	1.1	1.8	1.0	0.8	4.43
Heredia	0.5	0.8	1.7	0.5	1.5	9.23
Alajuela	4.0	5.3	7.0	29.0	30.0	24.43
Guanacaste	50.8	34.5	34.3	11.5	11.9	6.82
Puntarenas	27.0	40.7	35.9	36.9	21.6	4.32
Limón	-	10.4	9.8	17.0	14.6	10.62
니카라과인 수	1196	1024	1302	16559	16467	153947(99)
전체 인구 대비 니카라과인 비중	0.9	0.56	0.54	2.07	1.23	7.6

출처: 각 해당연도 인구통계에서 재구성

45) 1998년 니카라과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었을 때 산호세에서만 86,691명이 사면을 신청했다.

이주자들의 절대 수 증가뿐 아니라 이들의 산호세 집중은 독립 이후 코스타리카인들이 자국 정체성 근간으로 가지고 있던 인종적 예외주의와 지리적 중앙고원주의와 충돌한다. 구체적으로 보자.

중앙고원주의(Vallecentralismo)는 독립 후 1940년대까지 코스타리카인들이 자국 영토를 인지하던 공간개념의 근간이었다. 지리적으로 코스타리카의 중앙고원은 오늘날 코스타리카 내 주요도시라 할 수 있는 산호세(San José), 에레디아(Heredia), 알라후엘라(Alajuela), 카르타고(Cartago)를 포함하는 분지 지역에 해당한다.⁴⁶⁾ 평균 해발고도가 1100미터에서 1300미터에 이르는 중앙고원 지역은 대서양이나 태평양 해안 저지대나 니카라과와 접한 북쪽 국경지역, 그리고 파나마와 접한 남쪽 국경지역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미의 스위스’라 불리던 애칭도 연중 봄 같은 기후가 지속되는 중앙고원의 기후조건으로부터 유래하였다.⁴⁷⁾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부족에 시달리던 코스타리카는 1940년대까지 굳이 기후조건이 열악하고 도로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앙고원 밖으로 인구 정주를 확산시킬 필요가 없었다.⁴⁸⁾ 동시에 이들의 국토에 대한 공간개념 역시 중앙고원으로 한정되었다.⁴⁹⁾

46)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쪽으로는 알라후엘라 주의 산라몽 지역, 동쪽으로는 카르타고 주의 파라이스 지역, 북쪽으로는 에레디아의 바르바 화산과 이라수 화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탈라망카 산맥 이북을 경계로 하는 내륙 분지 지역이다. 코스타리카 내 일곱 개로 구성되는 각 지방은 같은 이름의 지방수도를 갖는다. 중앙고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각 지방의 지방 수도와 인근 주변 지역으로 한정된다.

47) 19세기 중반 코스타리카를 여행한 독일인 Wilhelm Marr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상춘기후를 보이는 코스타리카 중앙고원 지역의 공기가 마치 스위스 알프스 지역과 비슷하다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반면 니카라과와 접하는 북쪽 국경 지역이나 대서양 혹은 태평양 연안지역, 그리고 파나마와 접하는 남쪽 국경지역 모두 중앙고원과는 완전히 상이한 덥고 습한 기후를 보인다.

48) 중앙고원 밖으로 인구 정주가 확산된 것은 1950년대이며 운송수단 발달에 따른 커피 생산지 확보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49) 이는 당시 코스타리카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교과서나 교양서 혹은 공식 문건에 코스타리카 국토공간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데, 20세기 중반까지 코스타리카에 대한 자연환경은 상춘기후를 보이는 중앙고원 지역에 대한 기술로 한정되었고, 인종 또한 중앙고원에 거주하는 유럽계 백인들로 한정되어 기술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임수진(2012)와 림수진(2015)을 참고할 것.

당시 중앙고원은 굉장히 배타적인 공간이었다. 혈통적으로 유럽계 백인 순혈에 기반해서 국가정체성을 확립했던 코스타리카가 자국의 국토공간으로 인지했던 중앙고원에는 오직 유럽계 백인만 정주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유럽계 백인이 아닌 경우 중앙고원 정주가 금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⁵⁰⁾ 실제로 식민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원주민이나 19세기 말 대서양 철도건설 과정에서 유입된 중국인과 흑인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진입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다.⁵¹⁾ 당시 코스타리카 사회는 유럽계 백인들만이 정주할 수 있었던 중앙고원을 ‘우리(Nosotros)’의 공간으로 인식했고 그 외 지역은 특정 인종과 연결 지으며 ‘타자(otros)’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⁵²⁾ 태평양 연안지역은 몰라토들의 공간으로, 탈라망카 산맥 지역은 원주민들의 공간으로, 대서양 연안지역은 흑인들의 공간으로 그리고 니카라과와 접한 니코야 반도는 메스티조들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사는 중앙고원과 ‘타자’가 사는 그 외 지역이라는 매우 확연한 이분법적인 지역구분을 만들어냈다(Putnam 1999; 림수진 2015).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19세기부터 니카라과인들이 코스타리카 내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음에도 코스타리카 사회가 이들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들의 지역적 분포가 중앙고원이 아닌 변방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⁵³⁾ 다시 말해, 코스타리카인들이 인식하는 국토공간인 중앙고원에서 그들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혈통적 예외주의 혹은 유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한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존재가 크게 문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

50) 독립 이전 16세기 · 17세기에 작성된 코스타리카 인구통계를 보면 중앙고원 지역에 유럽계 백인보다 메스티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미 코스타리카에 광범위한 혼혈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사실이 명백하지만, 독립 이후 한 세기 이상 코스타리카인들은 유럽계 백인 순혈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51) 이부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림수진(2015)을 참고할 것.

52) 림수진(2012), 림수진(2015) 참고할 것.

53) 당시 니카라과 이주자들이 집중되었던 과나카스테, 폰타레나스, 리몽 등과 같은 지역은 코스타리카인들의 국토공간 틀 안에서 완전한 ‘변방(marginal)’으로 인식되었다. 독립 이후 한 세기 이상 변방 지역으로 공권력 투입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세기 말 니카라과인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 아니라 그들 중 대다수가 중앙고원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코스타리카 사회에서 오랫동안 국가정체성의 축을 형성하던 중앙고원주의와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코스타리카인 고유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⁵⁴⁾

한 세기 이상 코스타리카인들이 국가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중앙고원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산호세 진입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산호세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집단거주지다. 그 중 한 예가 La Carpio⁵⁵⁾ 구역이다.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위협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질서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La Carpio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게토화된 이주자 공간이다.⁵⁶⁾ 2000년 당시 공식 인구는 2만3천 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5만 명 이상으로 계산된다. 1996년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의해 La Carpio 구역이 무단 점유된 후 코스타리카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위협, 즉, 살인·강간·매춘·마약거

54) 20세기 말 21세기 초 코스타리카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위협(amenaza)’ 이었으며, 기사들 대부분의 내용은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의해 코스타리카 국토공간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다(Molina 2002). 또한 Sandoval(2002)은 코스타리카 내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니카라과인들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로 “otros”, “amenazante”, “conflictivo”, “comunista”, “delincuencia”를 들고 있다.

55) 코스타리카 수도 San José 중심으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져있으며 쓰레기 매립지와 접해있다. 원래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의료기관인 CCSS 소유 공간이었으나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친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무단점거에 의해 형성된 거주구역이다. 산호세 내에서 완전히 게토화 되었다. 면적은 약 23km² 이다. 2000년 이후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도로망은 2016년 현재 주요 진입로 외 비포장 상태다.

56) 2015년 현재 산호세 중심에서 La Carpio는 대중교통 버스로 연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La Carpio에 가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타리카인들 역시 La Carpio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시 되어있다. 이 외에도 산호세 외곽의 Leon Trece나 Hatillo 등과 같은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게토화된 주거공간이 존재한다.

57)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대변되는 상황에 대해 La Carpio 주민들이 갖는 불만에 대해서는 Berene Montoya et al.(2008)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로 제시된다. 실제로 2004년 La Carpio에 거주하는 니카라과 이주자들 중 600명이 한꺼번에 불법과 잠재적 범죄자로 추정되어 연행되기도 했고 이후 경찰과 니카라과 이주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비무장 민간인을 향한 경찰력의 최루탄 발사는 코스타리카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어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래 등이 일상화 된 현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⁵⁷⁾ 이와 관련해 짚어야 할 사실은, 2000년 기준 해당지역의 니카라과인은 전체 인구의 49.1%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⁵⁸⁾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코스타리카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대부분 언론들이 La Carpio의 심각한 현실을 니카라과인들에 한정하여 직결시키고 동일시함으로써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니카라과 이주자에 의한 것이라 여겨지는 치안부재 역시 코스타리카인들이 갖는 국가정체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⁵⁹⁾ 중미지역에 위치하면서도 한 세기 이상 유지해왔던 유일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의해 희석되고 종국에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와 같이 될 것이란 분노와 두려움이 지배적이었다.⁶⁰⁾ 그러나 코스타리카인들이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혐오가 그들의 주장대로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의한 강력 사건과 사고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실제로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민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를 육박했지만 수감자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997년을 제외한 4년 간 코스타리카 내 수감자 중 니카라과 국적자는 각 연도 별로 3.8%, 5.2%, 4.6%, 4.9%였다(Sandoval 2008, 281). 이 수치는 코스타리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고 코스타리카 사회에 통용

58) 2004년에는 해당지역 전체 인구 22,296명 중 59%가 코스타리카인이었던 걸로 조사되었다. 물론 비공식 인구까지 포함하고 니카라과인 부모를 가졌으나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나 코스타리카 국적을 얻은 이주자 2세를 고려하면 니카라과인의 비중은 높아질 수 있다.

59) 2004년 실시된 통계에서 코스타리카인들이 국내 치안 부재의 원인으로 답한 것은 첫째는 마약과 음주, 둘째는 실업, 그리고 셋째가 '너무 많은 이민자(Demasiados Extranjeros)'였다.

60) 2004년에 실시된 통계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내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들로 경찰력 강화(17.4%), 공권력 강화(13.5%), 시민조직에 대한 지원(11.2%), 그리고 이어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9.9%)가 언급되었다.

61) 이는 전체 외국인 수감자 중 니카라과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2011년 코스타리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니카라과인이 코스타리카 내 전체 외국인 수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64.7%로 나타난다(Mauricio Montero

되는 니카포비아와 전혀 상반되는 결과다.⁶¹⁾

결국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존재가 코스타리카 내 사회보장 서비스 악화나 실업 증가와도 직접적 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우려하는 치안부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사회가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혐오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중앙고원, 그것도 수도 산호세에 너무 깊숙히 들어와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세기 이상 이어진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 이주 역사 상 가장 확연한 변화이기도 하고 코스타리카 사회 내 극명한 형태의 니카포비아 등장과 시기를 같이 한다.⁶²⁾ 결국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사회 내 등장한 니카포비아는 명백하게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종적 예외주의 혹은 유일주의와 지리적으로 중앙고원이라는 배타적 공간을 탄생시켰던 코스타리카의 역사가 만들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V. 결론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인은 현대 자동차와 같은 것이지요,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El Nicaragüense es igual que el Hyundai, en cada familia Tica hay uno)”.⁶³⁾ 코스타리카에서 현대 자동차와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공통점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코스타리카인들의 삶에 매우 깊이 들어와있다는 점이다.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기본

2011). 당해 니카라과인이 전체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74.6%였다. 물론 합법적인 경우에 한한다. 불법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62)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인들의 불법 점유를 통한 집단거주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존재했다. 그 예로 1977년 카르타고 지역에 형성된 Los Diques 구역을 들 수 있고 1980년대 알라후엘라 지역에 형성된 Los Guidos와 Rincon Grande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산호세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타리카인들의 반감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63) Campos Zamora y Trsitán Jimenez(2009) 책의 제 5장 제목이다. 해당 장은 코스타리카인들의 니카라과 이주자에 대한 인식 인터뷰가 주 내용이다. 현대는 코스타리카 내 가장 흔한 자동차 브랜드다. 1990년대 말 현대자동차의 ACCENT 모델 중급차량이 대량 수입되면서 자동차 소유가 비교적 쉬워졌고 코스타리카 내 MY CAR 시대가 열렸다.

코드라 할만하다. 20세기 말 기형적이라 할만큼 빠르게 증가한 코스타리카를 향한 니카라과인들의 이주는 ‘니까’라는 말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사회 전반에 이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만들어 냈다. 사회보장 약화나 치안부재 등과 같은 코스타리카 내 불쾌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핑계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에게 돌려졌다.

실제적으로, 코스타리카 내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숫적 증가는 현실적 공간들에서 구체화된다. La Carpio보다 훨씬 가까운 수도 산호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Mercedes 광장이 그 한 예다. 오랜 시간 코스타리카인들이 예외주의와 유일주의에 기반해 자부심을 가졌던 CCSS의 대표병원 Hospital San Juan del Dios에 바로 면한 광장이다. 그곳에 매일 수백 명의 니카라과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니카라과 음식이 판매되고 당일 국제버스를 타고 건너온 니카라과 주요 일간지들이 판매된다. 코스타리카 속 작은 니카라과라 할만하다. 코스타리카 깊숙히 니카라과가 들어와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불과 이십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던 풍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타리카 내에서도 한편으론 실익계산에서 니카라과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세기 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이들이 없었다면 코스타리카의 농업뿐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란 사실과 더불어 코스타리카 내 노동의 인종적 분화가 일반화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럼에도 La Carpio와 메르세데스 광장과 같이 중앙고원 깊숙이 들어온 니카라과인들에 대해 코스타리카인들은 여전히 혐오의 감정을 갖는다. 더불어 ‘니까’라는 말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고,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20세기 말 집중된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급격한 숫적 증가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코스타리카의 국가정체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주변국과 달리 백인 중심의 인종구성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온 정치경제적 예외주의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공간적으로 발현된 중앙고원의 상황이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결국 주변국과

같아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이는 20세기 초 코스타리카 사회가 중국인과 카리브지역에서 유입된 흑인들에게 보여준 혐오와 상통하고 건국 초기부터 철저히 분리해 온 코스타리카 내 원주민에 대한 태도와도 상통한다. 결론적으로 20세기 말 코스타리카 사회에서 보여진 니카라과 이주자들에 대한 혐오는 니카라과 이주자들의 급격한 증가 현상에 코스타리카 사회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림수진(2015), 「코스타리카 네그로포비아 기원과 전개: ‘검은도시’ 리몽과 ‘백인피’ 순혈주의의 충돌」,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8, No. 1, pp.97-124
- 임상래(2005),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주자 인권과 제도포비아」,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3, pp.5-27
- 임수진(2012), 「코스타리카 내 중국인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중남미연구, Vol. 31, No. 3, PP.141-168
- 임수진(2005), 「코스타리카 커피경제의 지역적 다양성과 전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álvaro Alcaraz, A. y Martínez Sánchez, C.(2013), “En el tiempo del libre mercado: conflictos y protesta social en Costa Rica durante el año 2012”, *OSAL*, 33.
- Baumeister et al(2008), *Estudio sobre las migraciones regionales de los nicaragüenses*,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Guatemala.
- Baumeister, Eduardo(2006), “Migración internacional y desarrollo en Nicaragua”, *Serie Población y desarrollo*, 67, CEPAL, Santiago, Chile.
- Brenes Montoya, M. et al.(2008), “La carpio: Segregación urbana, inseguridad y estigmacion social en una comunidad binacional en Costa Rica”, *Iberoamericana*, VIII 32, pp.119-135.
- Botey Sobrado, A,(2005), Costa Rica entre guerras: 1914-1940, *Serie Cuadernos de Historia de las Instituciones de Costa Rica*, Editorial de Universidad de Costa Rica.
- Bourgois, P.(1994), *Banano, etnia y lucha social en Centro América*, Editorial Departamento Ecuménico de Investigación, San José.
- Boza Villarreal, A. y Solorzano Fonseca, J.(2002), “El estado nacional y los indígenas: el

- caso de Talamanca y Guatuso Costa Rica, 1821-1910”, *Revista de Historia*, No. 42, pp.45-79.
- Campos Zamora, A. y Tristan Jimenez, L.(2009), *Nicaragüense en las noticias: textos, contextos y audiencias*, Editorial UCR.
- Castro Valverde, C.(2002), “Migración nicaragüense en Costa Rica: Población, empleo y necesidades básicas insatisfechas”, *FLACSO*(sede en Costa Rica), San José.
- Davila Arriola, E.(2010), *Emigración Internacional de Nicaragüenses en la segunda mitad del siglo XX*, Universidad Internacional de Andalucía.
- Estudiante del Programa Maestría Académica-Comunicación(2000), *La Población Migrante Nicaragüense en Costa Rica: Realidades y Respuestas*, Centro para la Naciones Unidas para los Asentamientos Humanos CNUAH/Habitat, San Jose.
- FLACSO(2005), *Centroamerica en cifras 1980-2005*, Editorial FLACSO.
- Gonzalez B.(2013), *Perfil migratorio de Nicaragua 2012*, Editorial OIM, Managua.
- Huhn, S.(2008) “La percepción social de la inseguridad en Costa Rica, El Salvador, y Nicaragua”, *Revista Ciencias Sociales*, No. 122, pp149-165.
- Lerussi, R.(2008), “Trabajadores domésticas Nicaragüenses: Feminización de la pobreza”, Tesis de Programa Maestría de Instituto Complutense de Estudios Internacionales, Universidad de Complutense de Madrid.
- Martínez Pizarro, J. y Reboiras Finardi, L.(2008), “Impacto Social y Económico de la inserción de los migrantes en tres países seleccionados de Iberoamerica”, *Serie Poblacion y Desarrollo*, No. 83, CEPAL, Santiago.
- Mauricio, F.(2011), *Análisis General Poblacion Penal Extranjera en Costa Rica*, Instituto Nacional de Criminología.
- Molina, X.(2002), “La migración desde la perspectiva de la prensa Cstarricense”, *Revista Latina de Comunicación Social*, No 49.(<http://www.ucll.es/publicaciones/latina/2002/latina49abril/4906molina.htm>)
- Morelos, A. y Costo, C.(2002), *Redes transfronterizas: sociedad, empleo y migración entre Nicaragua y Costa Rica*, FLACSO.
- Paniagua Arguedas, L.(2007), “Situación sociolaboral de la Población Nicaragüense en Costa Rica”, *Revista Ciencias Sociales*, No. 117-118, pp.57-71.
- PNUD(1999), *Estado de la Región*, San José.
- Putnam, L.(1999), “Ideología racial, práctica social y Estado Liberal en Costa Rica”, *Revista de Historia*, No. 39, pp. 139-186.

Rico, José María(2006), *Inseguridad Ciudadana en Costa Rica: balance de la situación*, Informe Nacional de Desarrollo Humano, PNUD, San José.

Sandoval Garcia, C.(1999), “Notas sobre la formación histórica del ‘otro’ nicaragüense en la nacionalidad costarricense”, *Revista de Historia*, No. 40, pp. 107-126.

_____(2002), *Otros amenazantes: los nicaragienses y formación de identidades nacionales en Costa Rica*, Editorial Universidad de Costa Rica.

신문기사

Alvaro R., A.(2008), “Inmigrantes dejan de ser una carga para la CCSS”, http://www.nacion.com/nacional/Inmigrantes-dejan-carga-CCSS_0_1006099385.html, (2008. 10. 10.).

Bravo J.(2015), “Nicas salvaran el Seguro Social Tico”, <http://www.laprensa.com.ni/2015/05/04/boletin/1825969-nicas-salvaran-el-seguro-social-tico>, (2015. 5. 4.).

Saint Hirarie, N.(2008), “El colapso de la CCSS”, http://www.nacion.com/opinion/foros/colapso-CCSS_0_1005099519.html, (2008. 10. 5.).

Sin Nombre(2010), “La pacífica Costa Rica es un seuno del pasado”, http://www.centralamericadata.com/es/article/home/La_pacifica_Costa_Rica_es_un_sueno_del_pasado, (2010. 9. 7).

Sin nombre, Sin fecha, “Costa Rica Inmigracion Nicaraguanse afecta servicio de salud en Costa Rica”, www.medicinatv.com/noticias.

영상자료

Ortega, P.(2014), “Documental Caja de Pandora”, https://www.youtube.com/watch?v=-r2ediV__fE.

림수진

멕시코 콜리마대학교 정치사회과학대학
rhimsu@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12일

A Study about the phobia against Nicaraguan migrants in Costa Rica

Su Jin Lim

University of Colima, Mexico

Lim, Su Jin (2016), "A Study about the phobia against Nicaraguan migrants in Costa Ric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73-105.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the discrimination and phobia against Nicaraguan migrants that reside in Costa Rica. During the last few decades of the 20th century, the number of Nicaragua natives that migrated to Costa Rica drastically increased. In general, it was stated that this phenomenon was caused by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 and the vulnerable economy of the time period. This article not onl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pushed Nicaraguans to Costa Rica, but also on the internal factors of Costa Rica such as the country's need of a Nicaraguan migrant labor force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structural change during the 80s and 90s. Beyond this, the article also analyzes the reasons for which xenophobia towards Nicaraguan migrants was generated, which I have defined as Nicaphobia, giving a great importance to the concepts of "exceptionalism" and "valley centralism".

Key words Nicaraguan migrants, Costa Rica, Phobia, Valley centralism, exceptionalism